

근로자의 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두손이엔지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ldhtree@safety.or.kr)

절단, 베임, 찰림 방지 장갑 판매업체 두손이엔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협착재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자 90,842명 중 협착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16,881명이었다. 여기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인 절단·베임·찰림 재해 역시 지난해에만 7,97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이들 재해(협착, 베임·찰림·절단)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 재해자의 40%, 서비스업 재해자의 20% 정도가 이들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의 재해자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이들 협착, 베임·찰림·절단 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로써, 정부 및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각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현장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맞물리면서 이들 재해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역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 중 90%가량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스 등 협착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계에는 철저히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들 방호조치의 중요성과 함께 안전한 작동방법 등을 근로자들에게 꾸준히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보호구 착용이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에는 마스크, 귀마개, 장갑, 안전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안전모도 필요하다. 협착, 베임·찰림 방지를 위해서는 각각의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도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이 맞춰져야지만 제조업 또는 서비스 사업장에서의 재해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이 조건들이 산업현장에서 당연히 지켜지는 문화가 조성되는데 정부는 물론 산업현장 관계자 모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기능 안전장갑 이곳에 다 모여있다

두손이엔지는 산업현장, 이중에서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팔과 손, 다리 등을 보호하는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안전장갑 및 팔보호대, 가슴보호대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두손이엔지의 제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 기능 때문이다. 베임 방지장갑이야 국내 여러 업체를 통해 현장에 널리 퍼져 있지만, 이외에도 이곳은 찰림, 툄림 방지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장갑들을 판매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홍섭 대표

가볍고 안전한 보호구 만들어 나갈 것

아무리 좋은 보호구가 보급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보호구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교육 등을 강화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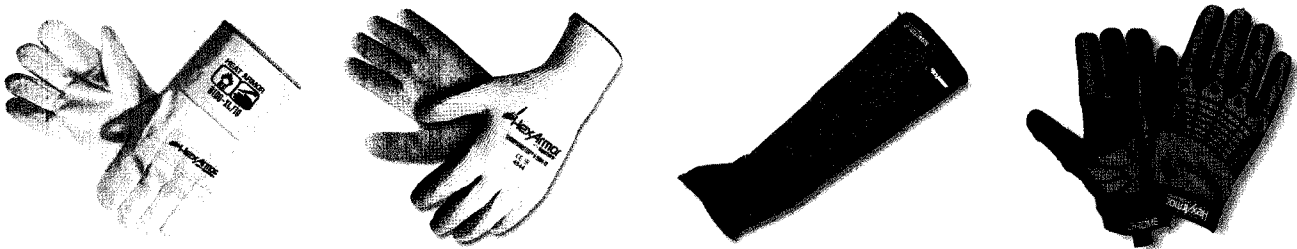
그리고 사업주 분들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투자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손이엔지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좀 더 가볍고 안전한 장갑들을 산업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먼저 내열 장갑이다.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내열 장갑은 용광로작업 등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장갑이다. 200℃ 이상에서도 물체를 다룰 수 있게 설계된 것은 물론, 절단 및 베임방지 기능도 갖춰져 있다.

두 번째로 찔림·베임방지용 장갑이다. 병원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봉지 위로 튀어나온 주사기바늘, 유리 등으로 인해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이들 사고를 예방키 위한 제품이다. 특수 직물로 처리해 주사기바늘 등은 물론 뾰족한 물체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게끔 제작됐다.

세 번째로 팔보호대다. 제조공장 선반작업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호구로, 풀림, 베임, 말림 등 선반작업 시 나



타날 수 있는 모든 재해를 방지키 위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충격보호장갑이다. 베임, 찔림, 풀림 등에 대한 방지 기능 외에 충격방지 기능이 장갑 앞·뒷면 모두에 갖춰졌다. 철판작업 시 철판을 떨어트렸을 때 손이 끼이면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장갑은 손에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조업 사업장을 가보면 프레스 및 선반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보호구조차 갖추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볼 수 있다. 또 병원의 청소작업장에서는 주사기 등의 위험물질이 많으나 맨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찔림, 베임 재해 등 무수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앞으로 위와 같은 고기능 장갑들이 현장에 많이 보급되어 우리나라에서 손과 팔에 재해를 입는 근로자들이 크게 줄어들길 기대한다. ☺